

석주 권필 선생의 시 세계와 묵향의 만남



석주(石洲) 권필(權輊, 추밀공과 22세, 1569~1612) 선생의 시 세계와 묵향의 만남이라는 전시회가 경기여성서우회(회장 조인화) 주최로 지난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인사동 경인미술관 1층에서 개최되었다. 경기여성서우회는 석주집을 번역했던 한양대 정민 교수의 추천으로 석주 권필의 시를 40여명의 회원들이 총 43점의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회를 마련했다. 경기여성서우회 회원은 5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들은 모두 초대작가 이상이다.

전시장에 들어서자 정민 교수의 “정감 어린 서정과 칼끝의 시 정신”이라는 제목이 석주 권필의 시정신과 작품 세계를 안내한다. 정 교수에 따르면 석주 권필은 한시의 수준을 정점으로 끌어 올린 한국 한시사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는 시인이다. 아 니 첫 손에 꼽힐 우뚝한 존재다.(석주집) 석주는 시인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뜻 높은 학자이자 강개한 선비로도 평가받는다. 우암 송시열마저 석주를 선생이라고 부를 정도였다. 언어를 다루는 솜씨 또한 가히 일품이다. 포곡(布穀)이란 시이다.

布穀(포곡) 벼곡
벼곡 벼곡(씨 뿌려라 씨 뿌려라)
布穀布穀(포곡포곡)
벼곡새 울음 속에 봄은 무르익었는데
布穀聲中春意足(포곡성중춘의족)



경기여성서우회 회원들과 조인화 회장(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

사내들은 전쟁 나가 시골 동네 텅 비었네
健兒南征村巷空(건아남정촌항공)
저물 낙연 들리니 과부의 울음소리
落日唯聞寡妻哭(락일유문과처곡)
씨 뿌려라 읊지만 布穀聲(포곡제)
누가 있어 씨 뿌리나 誰布穀(수포곡)
들뜬엔 아득하게 풀빛만 자욱하네
田園茫茫烟草綠(전원망망양초록)

봄 농사철이 되어 빠꾸기가 벼곡 벼곡 울어대자 석주는 이 빠꾸기 울음소리를 포곡布穀 포곡布穀이라고 재치있게 포착한다. 정민 교수는 이를 벼곡 벼곡 이라고 운 치 있게 번역한다. 빠꾸기의 울음소리와 씨 뿌리는 농촌 풍경이 자연스럽게 수록 화처럼 그려진다. 그런데 그렇게 빠꾸기가 울어대도 씨 뿌릴 사람이 없다. 수지리 살러간 사내는 쟁기질을 할 수 없다. 동네가 텅 비어 있다. 저녁에는 아침나절의 빠꾸기 소리는 온데간데없고 과부 울음소리만 처량하다. 시대의 모순과 백성들의 삶의 질곡이 숨김없이 그대로 드러난다. 포곡(布穀)은 석주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의식과 기발하고 격조 있는 시어(詩語) 그리고 시대를 풍자하는 그의 시 세계를 함축한다.

석주는 ‘말’을 다루는 장인이다. 대장장이가 쇠를 다루듯 말을 자유자재로 주무르



연꽃 탐사-41명의 회원이 한마음으로

며 말로 탐을 씌는다. 소나무(松), 대나무(竹), 매화(梅), 국화(菊), 연꽃(蓮) 등이 주요 소재로 활용된다. 소나무는 땅의 명을 받은 존재다.(松소나무 시 구절: 乃知獨也靑靑受命於地내지독야청청수명어지) 뿌리는 깊은 샘까지 박혀 있다. 줄기는 곧게 뻗어 우뚝 솟았다. 자태가 깨끗하다. 그러니 찬눈을 맞고 한겨울을 견디며 독야청청 홀로 푸르며 시들지 않는 그 자태를 안 쫓으면 무엇을 쫓느냐고 석주는 반문한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굳은 절개의 선비정

신이 숨어 있다. 정민 교수는 석주의 이 한 시 작품들을 한글 글자 수까지 의식적으로 고려하며 치밀하게 번역했다. 한글 탐사의 탄생이다. 경기여성서우회 41명의 회원들은 ‘연꽃’ 시를 한 구절씩 붓으로 써서 탐시를 완성했다. 한 글자 한 글자의 시어가 건축언어로 새롭게 재탄생하는 순간이다.

소나무는 땅의 명을 받아 땅에 깊게 뿌리박아 푸르고 푸르르다. 땅은 거짓이 없다. 그러나 천도는 (天道)는 선한 사람에게 복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 벌을 주지 않는 듯하다. 그래서 석주는 하늘에 따져 묻듯이 “하늘은 어찌된 그리도 푸른가, 취중에 휘갈겨 쓴다”(天何蒼蒼 醉中走筆 천하창창 취중주필)라는 시를 짓는다.

하늘은 어찌하여 푸르디푸르고
天何蒼蒼(천하창창)
땅은 어찌하여 넓디넓으며
地何茫茫(지하망망)
…… (중략) ……
도척은 어찌하여 천수를 누렸으며
盜匪何以壽(도척하이수)
안연은 어찌하여 일찍이 죽었으며
顏淵何以殤(안연하이상)
…… (중략) ……
만물이 모두 이와 같으니
萬物盡如此(만물진여차)
이 이치를 닮 설명할 수 있오랴
此理誰能詳(차리수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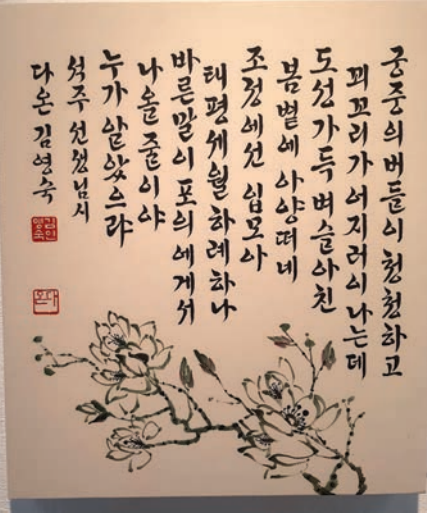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을 밤 먹 듯하는 천하의 큰 도둑 도척은 천수를 누리고 공자의 가장 애제자인 안연은 32살에 요절해야만 하는 이치를 석주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부조리한 사건과 불공평한 사태 앞에서 누가 이런 하늘의 이치를 설명할 수 있으랴 하며 천도(天道)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 도대체 천도는 있는 것인가.

그는 술회(懋懋)라는 시에서 “소년 시절에는 지기가 씩씩해(少年志氣壯) 큰 기세로 이윤이나 여망처럼 되려 했었지(長嘯望伊呂)” 라고 회상한다. 탕왕을 도와 은나라를 건국했던 이윤과 무왕을 도와 주나라를 건국했던 강태공처럼 세상을 바로잡으려는 꿈이 있었다. 이윤은 혁명 이후 ‘탕임금을 요임금 순임금처럼 만들고, 우리 백성을 요임금 순임금의 백성처럼 만들겠다’는 정치적 비전을 가진 인물이었다. 또한 ‘내가 아니면 이 백성들을 누가 깨우치겠는가?’하는 강한 책임의식으로 유명한 재상이다. 맹자는 이런 이윤을 책임감의 표상이라며 성지임자(聖之任者)라고 평가했다. 석주는 혼탁한 세상의 질서를 바로 잡으려는 꿈을 가지고 과거시험에 응시하여 초시 복시에 모두 장원을 했으나 글자 하나를 잘못 쓰는 바람에 합격이 취소되고 말았다. 거기에 왕세자 책봉을 둘러싸

고 발생한 신묘당사(辛卯黨事) 즉 송강 정철이 세자 책봉 문제로 광해군의 노여움을 사서 파직당하고 강제로 유배 가게 된 사건으로 송강 정철의 풍류를 사모했던 석주는 충격을 받고 그만 욕망의 문을 닫아버리고(塞兌閉門) 만다. 훗날 사람들은 석주는 “용통성이 없어 세상에 능히 구차스럽게 영합하지 못할 것을 스스로 알았고, 더욱 정철이 죽은 뒤에 죄명을 입은 것을 마음 아프게 여겨서 드디어 다시는 과거를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연려실기술 권19) 그는 세상에 뜻을 두지 않고 시와 술을 친근한 벗으로 삼았다.

1611년 광해군 3년 봄 별시 문과의 전시(殿試)에서 ‘지극 가장 시급한 나랏일은 무엇인가’라는 책문(策問)에 대해 진사 임숙영(任叔英)이 대책(對策)을 작성하면서 “왕비와 후궁들이 권력에 개입하는 것을 용납하고 묵인하고 계시고, 뇌물을 마쳐 승진하는 길을 열어 놓고 계시며, 편안히 쉬며 허송세월 하고 계시니, 쉬지 않고 스스로 부지런히 힘써야 한다는 도리가 사라지고 말았다” “백성들은 나라에 의지하려고 하지만 백성들의 상황이 위로 통하지 않는다”고 직격탄을 날린다. 이에 광해군은 임숙영이 응제문에서 방자하고 거리낌없이 패악한 말을 하였다고 크게 노하며 임숙영의 이름을 במק에서 삭제하도록 명하는(광해 3년 3월 17일 정사) 사건이 발생한다. 이때 도대체 하늘에 도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하며 세상에 뜻을 두지 않았던 권필이었지만 임숙영의 삭과 소식을 듣고는 한탄하며 <임숙영의 삭과 소식을 듣고聞任茂叔削科>라는 시를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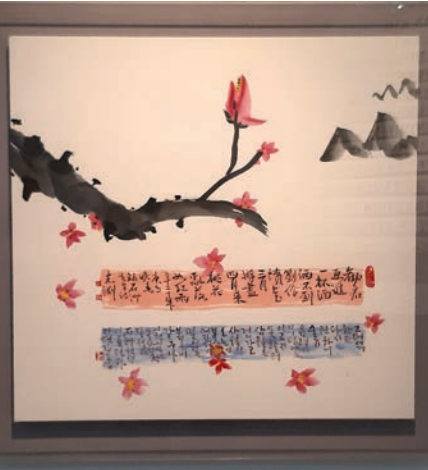
궁궐 버들 푸르고 꽃잎 어지러이 날리는데
宮柳靑靑花亂飛(궁류청청화난비)
은 성의 벼슬아치 봄별에 아양 떠네
滿城冠蓋媚春暉(만성관개미춘휘)
조정에선 태평세월 즐거움을 하례하건만
朝家共賀昇平樂(조가공하승평낙)
누가 위언을 포의에게서 나오게 했나
誰遣危言出布衣(수견위언출포의)



다온(茶淵) 김영숙의 궁류시(宮柳詩)

궁류(宮柳)가 문제였다. 사람들은 모두 유가(柳家)를 지칭한 것이라고 여겼다. 광해군 또한 궁류가 외척인 왕비 유씨의 오라비인 유희분(柳希奮)과 유희량(柳希亮) 형제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권필이 어떤 사람이기에 감히 이런 시를 지어 멋대로 비난한단 말인가. 임금을 무시하는 부도한 죄가 매우 크다”(광해 3년 3월 17일 정사)하며 노발대발했다. 권필은 “신은 단지 경치에 대해 말했을 뿐입니다”라고 했으나 혹독한 곤장을 맞고 들것에 실려 동대문 밖으로 나갔는데 잠시 민가에 머무는 사이 빗들이 권하는 막걸리를 마시고 장독(杖毒)이 위로 치받쳐 그만 세상을 뜨고 말았다. 1612년 4월 7일, 그의 나이 44세였다. 잠시 머물렀던 민가의 문파 위에는 죽음을 예감한 시 권군경진(勳君更進)이 쓰여 있었다.

그대에게 한 잔을 다시 권하나니
權君更進一盞酒(권군경진일배주)
술이 유령의 무덤에는 이르지 않을 터
酒不到劉伶墳土上(주부도유령분상토)
3월은 거의 가고 4월이 오는데
三月將盡四月來(삼월장진사월래)
복사꽃 어지러이 떨어져 붉은 비 갈구나
桃花亂落如紅雨(도화난락여홍우)



지연(志淵) 김소임의 권군경진(勳君更進)

사관은 실록에서 석주 권필의 필화사건을 두고 이렇게 논했다. 국가가 망함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은가. 이와 같이 하고서 망하지 않는 자는 드무니 통탄을 금할 수 있겠는가.(광해 3년 3월 17일 정사)

경기여성서우회 회원들은 경기도와 인연이 있는 선인들의 시 등을 통해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2019년 작년에 석주 권필의 시 세계를 전시할 예정이었으나 중국 돈황시 초청으로 불교 관련 전시를 하는 바람에 1년이 연기되었다고 한다.

이번 석주 권필 선생의 시 세계와 묵향의 만남은 경기여성서우회의 6번째 전시회에 해당한다.

편집국장 권행만

태사묘관리위원회 제20기 관리위원 회의 개최

안동태사묘관리위원회(위원장 김효진)는 7월 15일 오전 11시 안동시 태사길(북문동) 태사묘(太師廟) 숭보당(崇報堂)에서 제20기 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안동권씨, 안동김씨, 안동장씨 등 태사묘 삼성(三姓) 관리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는 장수식 사무국장의 사회로 태사묘 망배, 위원들간 서로 마주보면서 상견례를 하였다.

김효진 관리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로 수고하신 위원들의 얼굴을 보니 대단히 반갑다”고 말하고 “해마다 비가 오면 태사묘 숭보당 주변이 빗물에 고여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숭보당 주변에 돌을 깔고 잔디를 임혀 빗물을 차단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상정한 안건 가운데 ‘태사묘 소유 토지매매에 관한 건’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태사묘 소유 토지현황을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태사묘 소유 토지 가운데 안동시가 오래전부터 20㎡ 가량을 무단으로 도로부지에 편입시켜 사용하고 있어서 보상조치를 요구했다 “고 말했다.

또 안동시 수상동에 있는 밭 138㎡를 9백만원에 판매할 계획이었으나 관리위원들



의 반대로 판매를 보류하기로 했다.

위원들은 이 밭을 팔아서 태사묘 재정에 큰 도움이 안되며 판매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며 유보시키기로 했다.

이 밖에 태사묘 주변 ‘민속의 길’ 주민협의회(대표 강점음)는 태사묘 담장을 낮추어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 태사묘가 문화재로 지정되어서 합부로 고쳐지는 못하지만 담장을 낮추면 노후된 주사(廚舍)가 노출되어 미

관에 좋지 않고 외부인이 월담하여 담뱃불 등으로 인한 화재발생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주사를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여 관리인이 주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관리위원 사무실도 신축하고 아울러 비상용 출입문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했다.

회의를 마친 참석자 전원에는 태사묘 부근에 있는 ‘서록복집’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헤어졌다.

보도부장 권영진